

서남대 의대 폐과반대 결의대회

정상화 공동대책위, 세종시 교육부 정문앞에서 개최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는 서남대 학교 정상화를 위해 18일 춘향체육공원에서 남원시장·시의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을 비롯 재경향우회·서남대학교 구성원 및 남원시민·사회단체 임원 등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부에 제출한 구제단축 계획안에 따른 의과대학 폐과반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세종시로 이동하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서남대 의대 폐과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7일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발빠르게 규탄성명서 채택과 교육부장관 면담 등을 실시했고, 남원시는 긴급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시의원·자원봉사단체·읍면동 일선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를 두달에 걸쳐 개최하고 있다. 또한 8월에는 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2만4000여명이 서명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남원시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

대책위는 교육부에 구 제단축의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반대 반대 대한 남원 시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범시민 운동 서명부 전달 및 장관면담 등을 요구했고, 폭염 속에서도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남원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표명하는 마음으로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동대책위 이정린 공동대표와 김용준 집행위원장·서일수 남원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하대식 전 도의회 의원, 김중관, 윤지홍, 전경기, 김정환, 박문화, 이석보, 양희재, 왕정안, 황인호 등 시의회 의원 및 단체장들이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하여 식방식을 단행하였고, 이것은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를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남원시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식방식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집계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그 중 24개 대

학은 다시 비리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리로 얼룩진 구 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어주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는 "교육부는 서남대 부실경영으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폐과방안 계획을 즉각 반격하고 구제단축의 유착관계 의혹을 불식시켜라" "교육부는 서남대 구 재단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폐과계획서를 사전에 언론보도한 저의는 무엇이든 더 이상 기만행정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서남대 설립취지를 살려 남원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노력과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라"고 결의하고 결의문을 전달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도 남원 시민단체·정치권 등 모든 힘을 동원하여 서남대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 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심초마을 '새뜰마을사업' 본격 추진

기본계수립 용역 발주... 2018년까지 12억 투입 주택정비 등 5개분야 사업 진행

순창군이 지난 2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계면 심초마을의 새뜰마을사업(농촌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의 취약하고 낙후된 마을에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안전확보, 경관조성,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와관련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기본계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체제로 2018년도까지 3년간 주택정비 등 5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9억, 도비 1억, 군비 2억원으로 총 12억원이 투입된다.

인계면 심초마을은 임실군과 접하고 있으며 매봉산(511m)으로 둘러싸인 심심산골 오지마을로 예부터 지푸실(深草)마을로 불리고 있다. 현재는 42세대 9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87%,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56%,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가구가 26%로 주거여

건이 취약한 마을이다.

이에따라 군은 슬레이트지붕개량, 빈집철거 및 주택수리, 마을상수도 공사, 재래식 화장실 정비, 마을 당산숲 휴식공간 조성 등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황숙주 군수는 "심초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통하여 사립찾는 농촌민들기 등 삼라농정(三樂農政)에 기여하고 순창군민의 행복체감 지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민원 실태 점검' 우수사례 선정

고창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전국 지자체 민원실태 점검' 결과 우수사례 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전했다.

군은 민원제도 분야와 민원처리분야, 민원행정서비스분야로 나누어 지

난 5월 19일부터 2일간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민원실무심의회를 통해 20개 점검대상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대면 접합심의를 개최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 개최했으며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한 민원실에 일일 명예실장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운영, 민원품질평가제 실시와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우수부서 시상과 부진부서에 대한 교육 강화 등으로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어린이의 꿈과 끼를 펼쳐보세요"

'임실N치즈축제' 서 10월9일 '전국어린이 창작동요제'

지난해 전국에서 10만명의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뤘던 '임실N치즈축제'가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임실N치즈축제 제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제1회 전국어린이 창작동요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1차 노랫말 접수를 시작으로 내달 12일까지 2차 작곡분야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9일 임실N치즈축제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창작동요제는 노랫말에 임실N치즈, 임실N치즈피자, 임실군 지역, 자연자원, 관광지, 생태자원 등이 노랫말에 표현되어야 하며, 군은 대표관광지 진흥사업으로 치즈축제의 연계해 관광지 육성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임실N치즈축제'는 '복명가왕! 전국청소년뮤지컬페스티벌', 치즈체험, 치즈과학체험교실,



치즈공예체험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거리와 치즈관련 먹거리가 선보여 가을 맛이 축제로 각광 받고 있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참여 신청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임실N치즈축제 홈페이지 (<http://www.imlifestival.com>)를 통해 신청서를 다룬 받은 후 이메일 (isncf2016@naver.com)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무더위쉼터에 폭염대비물품 지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주민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원했다.

군은 폭염피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선풍기 147대, 에어쿨매트 167개, 쿨스카프 592개 등 냉방물품을 총 323개의 무더위쉼터에 지원했다고 18일 전했다.

고창군에서는 현재 574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냉방기기를 가동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아간개방과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관리사와 복지도우미 등이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방문 및 전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폭염특보 발표 시 폭염취약계층에게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안내 문자 발송 등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양병익씨, 햅쌀 첫 수확

지난 17일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문화마을 앞에서는 남원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생종벼 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양병익씨 생산 농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조생종벼를 이앙 이번 첫 수확을 시작으로 10월 초까지 수확할 계획이며, 금번 수확한 벼는 남원농협 미국종합처리장과 전량 계약재배를 추진 추석 전에 고품질 햅쌀로 전국에 출하해 나갈 예정이다.

양병익씨는 그동안 벼농사 경력 50년이 넘는 농가로 매년 토양분석에 따른 토양비배관리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쌀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오고 있으며,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벼 수확 후 양과 등 율동작물 재배와 논 대체작물 개발과 소비자가 원하는 밭맛종은 쌀 생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남원시는 금년 9,288ha 벼 재배면적에 고품질 쌀생산을 비롯해 포도, 딸기, 복숭아 등 다양한 품목의 명품 농산물이 생산 전국에 출하되어 '영농1번지'로 자리잡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임실군은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만19세 이상 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표준 추출한 12개 읍·면 522가구, 약 8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건강조사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생활습관, 의료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북대학교, 임실군보건의료원이 함께 실시한다.

위탁기관인 전북대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6명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 노트북)를 이용한 건강면접을 진행하며, 선정된 가구는 안내 우편물이 발송되고 가구원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한다.

주민의 질병이환, 사고증동, 의료이용, 건강행태,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 171개 문항으로 구성돼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설문지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의 과학적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원동기면허 출장시험 큰 호응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18일 순창군 동계면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취득편의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동기 운전면허 출장시험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시험은 교통안전교육, 학과 및 기능시험이 당일 진행돼 편의를 도왔다.

이날 시험을 통해 주행시험 전 오토바이 안전 주행방법, 사고발생시 응급처치요령, 안전운전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응시자에게 안전모를 배부하며 이론오토바이 운행시 필수 규정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농산물 절도예방 활동 만전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는 최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고추 등 주요농작물의 수확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판단하고 경작지와 보관장소 등에 대하여 절도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아산파출소(소장 최영대)는 고추건조장, 수박2모작 비닐하우스 등의 위치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방법치안요소를 꼼꼼히 입수하여 사전 방법치안 활동을 마친 후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순찰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고추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인만큼 건조장소와 보관창고 등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보관방법 등을 지도하는 한편 신규장소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생생한 정보를 순찰노선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